

『신생활』의 역사적 의미 재론*

-잡지사의 사회적 실천을 중심으로-

정운성**

〈차 례〉

1. 들어가며
2. 신생활사와 1922년 신석현 사건
3. 신생활사의 체육대회, 강연회 그리고 인쇄설비
4.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식민지 조선의 최초의 사회주의 잡지를 발간하고, 최초의 필화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진 신생활사의 여러 대외적 활동에 주목했다. 사학계와 국문학계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주의 지식과 관련한 잡지의 번역·수용 양상과 그것의 당대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다. 하지만 신생활사의 주요 필진들은 사회주의 담론을 보급하면서도 동시에 사회 현안에 즉각적으로 개입했다. 예컨대 신생활사는 1922년의 ‘신석현 학살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내 언론·사회단체들과 제휴하여 식민통치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했고, 잡지사의 주도적인 움직임은 기미년의 민족적 쫓겨난 환기를 환기할 만큼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신생활사는 체육대회, 강연회를 개최하며 지식과 담론의 차원과 다른 경로로 민중과 접촉했고, 강력한 인쇄 역량을 기반으로 여타 사회운동단체와 연계된다. 이른바 ‘신생활사 필화 사건’ 당시 잡지사를 둘러싼 전방위적 행정·사법 조치는 사회주의 지식체계의 유통지이자 ‘활동기지’로서

* 필자는 2021년 초부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진행된 잡지 신생활 세미나에서 공부하며 이 글을 썼다. 세미나를 이끌어주신 김현주 교수님과 더불어 흥미로운 자료들과 논의를 공유해주신 가계모토 츠요시, 백은주, 전성규, 정한나, 조정운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더불어 투고본에서 논의한 사회운동가 신백우를 개별 연구 주제로 설정할 필요를 일깨워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담지 못한 내용은 추후 연구로 재구성하여 논의할 것이다.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의 신생활사의 면모를 방증한다.

[주제어] 강연(연설)회, 신생활, 신석현 사건, 인쇄설비, 체육대회, 1920년대

1. 들어가며

기미년 사건이 있는 후 삼 년 만에 조선에서는 처음이라는 아따 그제 무슨 주의 자라든가? 옳지 사회주의자!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자 공판이 또 내 앞에서 열렸습 니다 신생활(新生活)이라는 잡지에 쓴 글이 문제가 되었다든가요 하여간 칠팔 명의 젊은 청년들이 내 앞에서 재판장의 심리를 받게 되었지요 그때 광경도 잊을 수 없는 심각 무비한 광경이었습니다. ……

하여간 지금 말한 두 사건은 나에게 매우 인상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경성 지방법 원 안 모든 법정의 대왕인 내가 아니면 구경도 못할 사건이었지요 들으니까 그 두 사건은 조선 사람들의 사상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 운동방향의 변천도 상징하는 것이라나요. ……¹⁾

전조선을 달구었던 3·1운동이 6년이 지난 1925년 3월 1일, 조선일보의 한 기사는 경성지방법원 ‘칠호 법정’을 의인화하여 재판 당시의 감상을 서술 한다. ‘칠호 법정’은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자 공판”이었던 신생활사 사건을 3·1운동에 견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던 재판정의 분위기가 당대의 사상적 흐름을 타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음을 전한다. 박팔양 또한 잡지 『신생활』이 발간되던 1922년을 “조선에 있어서 민족운동자와 계급운동 자 간의 사상상 충돌과 및 실제운동 상의 충돌이 빈번[頻頻]히 일어나던 때”로 서술하면서, 신생활사 사건을 근거로 “긴장된 사회적 공기와 민족·계급 양 사조의 투쟁”이 “기미년 당시의 사회정세”에 못지않았음을 언급했다.²⁾ 문화통치를 기점으로 분할된 기미년과 그 이후의 역사를 연결하는 일종의

1) 「기미 이후 유명해진 칠호법정자만담」, 『조선일보』, 1925년 3월 1일, 2면.

2) 박팔양, 「조선신사운동개관(八)」, 『조선일보』, 1929년 1월 12일, 3면.

‘역사적 거점’으로 소환된 점을 유념할 때, 신생활사 필화 사건이 가졌던 당대의 비중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일련의 연구들은 잡지사가 발간한 잡지 『신생활』이 유통한 사회주의 지식 체계와 그것의 당대적 의미를 분석한 바 있다. 일례로 박종린은 간부 및 주요 필진들의 이력, 집필 편수를 정리하여 ‘신생활사그룹’을 규정하고, 이들이 ‘신사상’ 소개의 일환으로 취한 번역의 경로와 그 의도를 분석했다.³⁾ 이를 배경으로 최근의 한 연구는 신생활사의 핵심 필자였던 신일용의 전기적 사실과 실제 투고한 글들을 배경으로 그가 수용한 사회주의가 어떠한 논리구조 위에서 구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했다.⁴⁾ 한편 김종현의 연구는 잡지 『신생활』이 소개한 사회주의 지식 체계를 당대 개조론의 흐름과 연관 지으면서, 문면에 제시된 사회주의 문학론의 양상을 정리했다.⁵⁾ 최병구는 1920년대 초반 조선에 유통되던 사회주의 지식 체계가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당대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였던 『공제』, 『신생활』, 『대중시보』가 ‘노동’의 문제를 자유·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더불어 필화 사건 이후 『신생활』의 일부 기자들이 KAPF 결성과 관계된 사실과 더불어 이들의 자유주의적 지향이 초기 경향 문학 형성에 관여했음을 논증하면서, 『신생활』의 문학사적 의의를 조명했다.⁶⁾ 한편 김정연은 『신생활』이 평민문화운동과 민중문예를 통해 제안한 ‘문화정치’의 의미에 천착했다. 연구에 따르면 1922년 김윤식사회장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신생활사의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의 통치와 부르주아 우파 세력의 ‘민족’을 부정하며 독자적인 공동체를 구상했던 것인데, 요컨대 그들의 기획이 강조한 ‘개인’과 ‘자유’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와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또한 『신생활』의 주요 필자들이

3) 박종린,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신생활』』, 『사림』 49, 수선사학회, 2014, 73~105쪽.

4) 전성규, 『‘감정’과 ‘노동’이라는 의미소 - 『신생활』에 실린 신일용의 글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31,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1, 161~197쪽.

5) 김종현, 『『신생활』의 사회주의 담론과 문예의 특성』, 『인문논총』 32,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199~222쪽.

6) 최병구, 『사회주의 문학 담론과 프로문학: 신경향과 문학 탄생의 주면(1920~1923)』, 『민족문학사연구』 49,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218~255쪽.

개진한 ‘감각’을 통한 ‘자아’의 회복은 김기진의 ‘감각의 혁명’에 앞선 것이자, 이를 기반으로 한 ‘평민문화’는 당대 ‘개조’의 한 축으로서 전면화될 수 있었다.⁷⁾

한 선행연구는 필화 사건의 공판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신생활사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했으며, 주보(週報)로 전환된 10호를 기점으로 『신생활』이 불세비키화되었음을 실증했다. 그리고 10호 필진들의 이력과 사회주의 활동가들과의 관계가 잡지의 ‘방향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되었다.⁸⁾ 잡지에서 발견되는 ‘사회주의’ 지향의 변화에 유념하면서도, 이 글은 ‘민족’과 ‘계급’이 병존하고 때로는 호환되었던 당시 조선의 언론 상황과 더불어 중심적 역할을 자임한 신생활사의 사회적 실천을 조명할 것이다. 부연하자면 이 글이 신생활사의 사회적 실천과 관련하여 먼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1922년 일본에서 발생한 조선인 노동자 사망사건, 이른바 ‘신석현 사건’이다. 신생활사는 조선의 여러 언론·사회운동단체와 제휴하고 ‘민족적 차별’을 규탄하는 조직적 움직임을 주도함으로써, 재일조선인 노동자의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제국(의 언론)에 대응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주지하다시피 1922년 1월 윤양 김윤식의 장례식을 둘러싸고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분화되었으며, 이는 사상단체 간의 직접적인 충돌과 더불어 ‘사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론적 세력다툼으로 이어졌다.⁹⁾ ‘민족’과 ‘계급’이 분할되어 가던 담론장을 배경으로 신생활사의 수립과 『신생활』의 발간이 이루어졌던 것이지만, 불과 반 년 여 지난 시점에 불거진 재일조선인 노동자 사망 사건은 통합을 위한 담론적·조직적 움직임을 촉발했다. 조선의 언론은 식민통치 권력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계급’과 ‘민족’의 문제가 구별될 수 없는 것임을 역설했고, 신생활사는 일종의 ‘활동기지’로서 복수의 사회단체들과 함께

7) 김경연, 『1920년대 초 ‘공동적인 것’의 상상과 문화의 정치』, 『한국문화논총』 71, 한국문화학회, 2012, 343~405쪽.

8) 박현수, 『『신생활』 필화사건 재고』, 『대동문화연구』 10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345~378쪽; 박현수, 『신문지법과 필화의 사이: 『신생활』 10호의 발굴과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69,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9, 269~300쪽.

9) 1922년 1월 김윤식 사회장 사건 관련 이론적 투쟁을 정리한 글로는 김현주, 『사회의 발견』, 소명출판, 2013, 323~357쪽 참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민족적 차별에 대한 제도적 해결을 요구함으로써 통치권력을 압박했다.

한편 신생활사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조선인의 육체적·정신적 ‘개조’를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인쇄역량을 바탕으로 각종 인쇄·출판 사업을 운영하고 여러 사회단체와도 연계했다. 필화사건 공판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인쇄기들은 잡지사의 ‘활동기지’적 면모를 구성하는 물질적 조건이었기에, 신생활사가 보유하고 있던 인쇄설비, 그리고 연관된 행적들은 잡지사의 역사적 의의를 보충하는데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로써 이 글은 신생활사와 관련하여 지식과 담론의 차원에 치중했던 선행연구의 경향을 상대화하고, 신생활사의 실천적 면모를 검토함으로써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되던 사회운동의 양상을 보충하고자 한다.

2. 신생활사와 1922년 신석현 사건

眞
ニ
ヤ
假
イ
ヤ

日本新潟縣信濃川에서 同廳并 慘酷히 虐殺한 當하야 當하는 凶變! 우리의 全神은 全이 激動되얏다
六百名 同胞의 安危는 果然히 一한가야! 우리가 一時라도 急히 양고 싶을것은 그의 凶變의 眞相이다
本會가 特派한 調査委員의 報告를 待하야 우리의 激動된 神經은 그로 措處가 있을리 없다. 當事實의 正確과 處理의 迅速을 圖기爲하야 左記事項을 同廳諸君에 對要索하노라

一、本虐殺事件 調査上 參考材料과 및 그의 關聯된 事實을 아는데 로 通知하야 주시압
二、本事件外에 勿論 去는 現在 在 勿論 하고 日本各地에서 同胞 勞働者가 當하야 虐殺事件이 잇거든 아는데 로 通知하야 주시압
三、金錢及他物品의 寄與로써 本會事業을 贊助하시는 人士에 對는 반드시 本會章과 및 本會會計의 實印을 押捺한 領受證書를 呈하겟

八
月
十
五
日

委
員

申 明 均 金 思 國 朴 熙 道 金 順
尹 德 炳 金 得 季 羅 景 錫 金 起 濂
朴 廣 熙 金 達 鉉 許 憲 金 起 濂

京 城 府 仁 濟 洞 三 九 番 地 朝鮮 勞 働 共 濟 會 內

電話 本 局 二 八 〇 七 番

本 新 潟 縣 朝 鮮 人 虐 殺 事 件 調 査 會

[그림1] 신석현조선인학살사건조사회 광고 (강조는 필자)
(『동아일보』, 1922년 8월 23일, 1면)

1922년 8월 동아일보는 ‘조선인 대학살’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발생한 조선인 살해사건을 보도한다. 기사는 신석현(新瀉縣, 니이가타현)의 조선인 노동자가 600명¹⁰⁾에 달하며, 그들이 기존 계약이 정한 매일 여덟 시간과 달리 “새벽 네 시로부터 저녁 아홉시까지 열일곱 시간”의 노동을 강제당하고 있음을 전한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가축[牛馬]” 이하의 존재로 전락했고, 견디지 못하고 도주한 몇몇은 살해당하여 그 시체가 인근 하천인 신농천(信濃川)에 버려졌음이 보도된다.¹¹⁾ 일본 내무성·척식국(拓殖局)·경보국(警保局)의 관계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 보도를 묵살했고, 시공사였던 신월전력회사(信越電力會社)와 두 곳의 도급업체가 책임을 회피하였기에,¹²⁾ 조사와 처벌은 답보 상태에 머무른다. 이에 식민지 조선의 사회단체들은 진상을 규명코자 회집했다. 신생활사, 청년연합회, 개벽사, 조선교육협회 등 언론·사회단체의 관련자 50여 명은 ‘신석현조선인학살사건조사회’(이하 조사회)를 조직했는데, 신생활사의 이사 및 주필 김명식은 조사회의 설립을 공표했으며, 사장 박희도는 석장(席長)으로서 조직의 운영을 맡는다.¹³⁾ 조사회는 8월 5일 조직된 후 18일, 21일, 23일 3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위의 홍보물을 게시한다.

홍보물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는 조사회가 독자에게 사건과 관련되는 증언과 자료를 요청하였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의 제보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시도는 사건을 축소·무마하려는 일본 제국과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식민지 간의 ‘민족적 갈등’을 문제시하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의 기자의 실명과 그의 증언을 거론하며, 일본 당국이 조선의 언론뿐만 아니라 국내(일본)의 언론에도 압력을 가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이 공개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¹⁴⁾ 더 나아가 과거에 일어났던, 또는 일본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제2,

10) 신석현의 조선인 노동자의 수효(數交)는 기사에 따라 상이하다. 실지 탐사를 앞두고 보도된 기사에서는 ‘867명’이라는 수치가 언급된다. 『위지에 모험탐사』, 『동아일보』, 1922년 8월 17일, 3면.

11) 『일본에서 조선인 대학살』, 『동아일보』, 1922년 8월 1일, 3면.

12) 『경히 주목되는 신석현 사건』, 『동아일보』, 1922년 8월 13일, 3면.

13) 『신석사건조사회』, 『동아일보』, 1922년 8월 7일, 3면.

제3의 ‘신석현 사건’의 제보를 요청함으로써, 조사회는 우발적이거나 부주의에 의한 산업재해라기보다 고착화되어가던 자본주의적 착취관계와 이를 강화하는 제국/식민지의 위계를 겨냥했다. 과연 이 시기 한반도에서 발생하던 일본인의 폭행 사건이 ‘신석현 사건’으로 설명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집단적 대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¹⁵⁾

조사회는 임시사무소를 인사동 39번지에 위치한 조선노동공제회관에 설치하고, 신명균, 김사국, 박희도, 김한, 윤덕병, 김득위, 나경석, 김기전, 박광희, 김달현, 허현으로 구성된 9인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다음날인 8월 6일 신생활사에서 열린 집행회의는 위원장으로 박희도를 선정하고, 조사위원 파견을 의결한다. 8월 7일에 출발한 나경석을 필두로, 8월 15일에는 김사국이 사건 조사를 위해 도일했다.¹⁶⁾ 조사회뿐만 아니라 조선의 잡지·신문사는 특파원을 보내어 앞다투어 사건을 취재했는데, 각 기관의 보도 일정과 내용을 유념하며 이들은 제국의 공권력과 언론에 공동으로 대응했다. 일례로 9월 3일 발행된 『동명』 창간호는 신석현 사건 기획기사에서 조사회의 김사국이



[그림2] 삽입된 박진열(좌)·박수열(우) 형제의 사진
(『개벽』, 1922. 10, 102~103면)

14) 이상협, 「신석현사건특전 확대참형의 실례」, 『동아일보』, 1922년 8월 20일, 3면.

15) 「영광에 신석사건」, 『동아일보』, 1922년 9월 11일, 3면.

16) 「조사위원출발」, 『동아일보』, 1922년 8월 8일, 3면; 「소식」, 『동아일보』, 1922년 8월 17일, 2면.

곧 귀국하여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기에,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조사결과를 보충할 수 있는 기사를 보도할 예정임을 밝힌다.

이후 실지조사위원 나경석은 기자로 재직하던 『동명』에 ‘학살’의 구체적인 사건을 묘사하는데, 그것은 생사를 달리한 조선인 노동자 박진열(朴珍烈)·박수열(朴壽烈) 형제의 사연이었다. 일본 경찰당국은 형 박진열이 대해 동생과 달리 일본어를 하지 이해하지 못하여 도주 중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결국 산중에서 굶어죽었다고 발표하였으나, 나경석은 시신이 하천의 상류에서 발견된 사실과 “360미터[千二百尺] 되는 산 위[山上]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돌에 묶여 떨어졌다[結石投下]”고 증언한 목격자를 취재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근거로 경찰의 조사에 의혹을 표한다.¹⁷⁾ 개벽사는 형제의 가족들을 심방(尋訪)한 주필 김기전의 소회를 편지의 형식으로 게재한다. 김기전은 “적어도 몇 해를 두고 계속적으로 탐색하지 않으면 못될 일”¹⁸⁾로 신석현 사건의 중대함을 강조하였고, 기사에는 가혹한 노동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망한 형과 가까스로 살아남은 동생의 사진이 함께 실린다. 다급했던 탈출의 증언은 사망한 형을 기리는 동생의 회고로 전달되어 독자의 감응(感應)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한편 조사회를 대표하여 나경석이 일본으로 떠나기 하루 전 동아일보사의 편집국장 이상협은 8월 6일 오후 열차를 타고 일본으로 향한다.¹⁹⁾ 이상협은 현장 방문 전 동경을 방문하여 내무성의 경보국(警保局) 등의 정부기관과 현장의 실무를 담당할 시공사를 취재한다.²⁰⁾ 현지답사를 진행한 이상협의 전보는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연재되는데, 그의 현장 조사는 재일조선인 노동자의 규모와 모집의 구체적인 과정으로부터 불합리한 계약조건, 열악한 노동·거주 환경, 민족적 차별 등의 주제를 다룬다. 기사는 ‘학살’을 둘러싼 증언들을 종합하여 보도하고, 그곳에서 사망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성명, 나이, 본적을 공개함으로써 국내 독자들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17) 羅公民(나경석), 「기괴망측한 신석현 사건의 진상」, 『동명』 1, 1922년 9월 3일, 4면.

18) 起濂(김기전), 「신석현 출가 중에서 희생된 동포의 유족을 찾고」, 『개벽』 28, 1922년 10월, 100쪽.

19) 「본사 특파원 파견」, 『동아일보』, 1922년 8월 6일, 3면.

20) 「경히 주목되는 신석현 사건 동경에 재한 이특파원의 활동」, 『동아일보』, 1922년 8월 13일, 3면.

전말을 폭로한다. 이상협은 답사기에서 하도급업체이자 실질적인 시공사였던 오오쿠라그룹(大倉組)이 경부철도 공사 등 과거 조선의 여러 토목공사에서 조선인 인부들을 부려본 경험²¹⁾이 있기에, 이들에 대한 학대가 거러질 것이 없었을 것이라 지적한다.²²⁾ 이로써 동아일보사는 신석현에서 자행된 ‘학살’을 20여 년 전 경부철도 부설의 강제노역과 같은 맥락에서 조명하고 제국의 ‘착취’를 역사화하고자 했다. ‘학살’을 포함한 회명(會名)으로 인해 조 사회의 간판이 압수²³⁾된 것과 마찬가지로, ‘학살’, ‘학대참형’, ‘살인’ 등 일본(인)의 ‘의도’를 주장한 동아일보에 총독부는 “세상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압수 조치를 내린다.²⁴⁾ 이에 동아일보는 현장 치안을 담당 한 순사 2인이 과거 조선에서 근무한 헌병임을 폭로하며, ‘민족적 차별’을 부인하던 관계당국에 맞서 ‘민족적 경계’를 환기하는 보도로 대응한다.²⁵⁾ 식민지 조선의 언론이 앞다투어 폭로한 “학대 굴혈(窟穴)에서 생사 위급한 잔존 동포”의 소식은 한반도 각지로 퍼져나갔고, 지방의 한 청년회가 이에 감응하여 동정금을 보낸 일이 기사화되기도 한다.²⁶⁾

조선의 언론이 사건을 대서특필하자,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는 이에 대응 하듯 ‘학살’이 단초가 되어 일어날 집단행동을 억제하고자 했다. 매일신보는 해당 사건을 “단지 조선만 문제가 아니라 일반 반장(飯場)²⁷⁾ 문제”임을 지적 하면서 조선의 언론에 의해 제기된 ‘민족적 차별’을 부정했으며, 동시에 “조선인 학살사건은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일본 관계당국의 입장을 전달했다.²⁸⁾ 지면에는 공사 현장의 ‘비인도적 대우’를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전화

21) 1904년 러일전쟁을 배경으로 한반도 전국에는 병참 시설이 구축되기 시작했는데, 대한제국의 백성들은 이 과정에 빈번히 강제로 동원되었다. 당시 일본군사령부의 허가로 오오쿠라그룹은 한국인 역부(役夫)를 독점적으로 모집하기도 하였고, 대한제국과 일본군을 대신하여 백성들의 동요에 대응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전관모집』, 『대한매일신보』 국문판, 1904년 8월 10일, 1면; 『훈령각도』, 『대한매일신보』 국문판, 1904년 9월 7일, 2면.

22) 이상협, 「신석의 살인경 혈등답사기(10)」, 『동아일보』, 1922년 9월 1일, 3면.

23) 「『학살』이자가 불온」, 『동아일보』, 1922년 8월 9일, 3면.

24) 이상협, 「신석의 살인경 혈등답사기(11)」, 『동아일보』, 1922년 9월 2일, 3면.

25) 이상협, 「신석의 살인경 혈등답사기(12)」, 『동아일보』, 1922년 9월 4일, 3면.

26) 「합천청년임시총회」, 『동아일보』, 1922년 9월 8일, 4면.

27) 광산 노동자나 대규모 토목 공사 또는 건축 현장의 작업자들이 이용하는 급식 및 숙박 시설을 통칭

28) 「도주원인과 방어책」, 『매일신보』, 1922년 8월 21일, 3면.

위복”의 계기로 삼아 일본의 관계자 및 유관기관이 조선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것을 제안하는 사설²⁹⁾이 실리기도 한다.

매일신보 동경 본사는 특파원을 파견하여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회에 걸쳐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매일신보의 기획탐사는 23일부터 시작되었던 동아일보의 답사기에 대응하듯 동시기에 마련된 것인데, 기사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노동자 또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었음을 재차 언급하고,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관리·감독이 고용계약을 강제할 수 없는 법적 허점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설명한다.³⁰⁾ 더 나아가 매일신보는 ‘학살’이 일본에 대한 조선인의 이해 부족이 빚어낸 “우매”한 “와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논평한다.³¹⁾ 사건을 둘러싸고 조선 언론의 폭로와 일본 언론의 진화(鎭火)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형국이 펼쳐지자, 매일신보는 “학살이라고 함보다 조선 사람은 오히려 우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덧붙여 조선의 지식계급이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불평을 고취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자기의 배속만 채우려”는 욕심으로 “노동에 견디지 못할 사람들을 함부로 모집”한 인부 모집책들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³²⁾함으로써, 사건이 민족 간의 갈등으로 전화(轉化)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탐사기 연재를 마친 직후 매일신보는 9월 2일부터 스즈키 분지(鈴木文治)를 필자로 한 「조선의 노동자」를 번역·연재한다. 스즈키 분지는 신석현 사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보름 전 “노동자들의 생활하는 것과 각 공장이나 또는 시골농민의 정형(定形)을 시찰”하기 위해 이미 조선에 머무르고 있었는데,³³⁾ 당시 일본노동총동맹의 회장직을 맡았던 스즈키 분지는 8월 중순 노

29) 「신석현사건과 오인의 감계」, 『매일신보』, 1922년 8월 24일, 1면.

30) 매일신보 특파원 카즈무라(勝村)는 기사의 말미에 “사건의 진상을 명백케 하기 위하여 노동자로 변장하고 감옥실의 생활의 실지를 당하여 그 사실의 실체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며 자신의 취재 방식을 밝힌다. “노동자로 변장”하여 사건 현장을 취재했다는 언급 외에도 문장 내에는 ‘진(眞)’과 ‘실(實)’이 여러 차례 언급되는데, 이는 한 발 빠르게 탐사보도에 착수한 동아일보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매일신보의 시도로 보인다. 「신월학살설과 변장탐사진상기(3)」, 『매일신보』, 1922년 8월 28일, 3면.

31) 「신월학살설과 변장탐사진상기(5)」, 『매일신보』, 1922년 8월 30일, 3면.

32) 「신월학살설과 변장탐사진상기(6)」, 『매일신보』, 1922년 8월 31일, 3면.

33) 「단결이 최대급무」, 『동아일보』, 1922년 7월 19일, 3면.

동충동맹회 경성지부에서 강연자로서의 활동³⁴⁾이 확인되기도 한다. 17일 간 9회에 걸쳐 연재된 이 기획은 필자인 스즈키 분지에 따르면 함경북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을 시찰한 후 작성되었으며, 그 목적은 조선의 일본인·중국인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환경과 더불어 “근년에 속속히 내지에 오는[移來] 조선 노동자”에 대한 “일 편의 지식을 득하기 위함”이었다.³⁵⁾ 필자는 “조선인이 원래가 심히 나태하여 능률이 높지 않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조선인 노동자들이 “기계공업에 전연 경험이 없”고, “대대로[屢代] 악정(惡政)”에 노출되어 “문명의 이기(利器)를 십분 이용치 못하”는 존재임을 지적한다.³⁶⁾ 조선인 노동자들은 “고급의 기술”을 보유한 일본인들과 애당초부터 경쟁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것이며,³⁷⁾ “기술이 우수”하고 근면, 절약의 습관을 겸비하고 인내력과 체력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불평도 말하지[言] 아니하”는 중국인 노동자와 견주어도 국내에서조차 “쫓겨날[驅逐]” 수밖에 없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에 불과했다.³⁸⁾ 매일신보의 의도는 분명했다. 매일신보는 조사회와 조선의 언론이 사건의 본질로써 제기한 민족적 차별을 ‘노동자’로서의 자격 결여로 환원함으로써, 신석현 사건으로 제기된 ‘노동’의 문제를 제국/식민지의 위계로부터 탈각시키고 있었다. 사건으로 인해 제기된 제일조선인 노동자 처우의 문제는 제일조선인 학생단체와 종교단체에 대한 과도한 감시와 제재를 비판하는 주장³⁹⁾으로 이어지며, 불과 3년 전 한반도 전역을 달구었던 3·1운동의 ‘민족적 열정’은 구체적인 보도를 계기로 재점화되고 있었다.

한편 신석현 사건을 계기로 노동환경의 조사와 개선을 요구하는 제일조선인들의 목소리 또한 커져갔다. 현지 조사를 수행한 나경석, 이상협, 김약수는 “조선인 노동자 학대사건은 신석현뿐 아니라 각 지방에 빈빈(頻頻)한 일”임

34) 『모임』, 『동아일보』, 1922년 8월 15일, 3면.

35) 鈴木文治, 『조선의 노동자(1)』, 『매일신보』, 1922년 9월 2일, 1면.

36) 鈴木文治, 『조선의 노동자(3)』, 『매일신보』, 1922년 9월 5일, 1면.

37) 鈴木文治, 『조선의 노동자(9)』, 『매일신보』, 1922년 9월 17일, 1면.

38) 鈴木文治, 『조선의 노동자(8)』, 『매일신보』, 1922년 9월 16일, 1면.

39) 『조선인입박』, 『동아일보』, 1922년 9월 24일, 1면.

을 인지하고 동경에 대응 기관의 설립을 제안한다.⁴⁰⁾ 1922년 8월 26일에는 재동경 조선인의 주도하에 신석현조선인노동자학살사건조사회(이하 사건조사회)가 설립되었는데, 이 조직에는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나카하마 데쓰(中浜哲) 등 일본의 좌익인사들도 참여했다.⁴¹⁾ 당시 대중시보(大衆時報)의 주필이었던 김약수와 동경조선인고학생단장이자 변호사였던 김형두가 주축이 된 이 조직은 조선인 노동자가 다수 모여 있던 후쿠오카(福岡),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홋카이도(北海島), 가자나와(金沢) 등지에 지부를 설치한다.⁴²⁾ 9월 7일에 열린 신석현사건연설회에서는 흑도회(黑濤會) 소속의 백무(白武)가 체포 후 구류되었으며 연사로 초청되었던 나카하마 데쓰 또한 회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체포되었다.⁴³⁾ 이 행사에는 사카이 도시히코와 오스기 사카에 등 사회주의 계열의 “변사(辯士)”들이 초청될 예정이었으나, “사회주의자가 참가하면 개최하는 동시에 해산시킨다”는 경시청의 겁박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동경에서 조선인이 주최한 최초의 연설회이기도 했던 행사를 기사화한 것은 다름 아닌 동아일보의 특파원 이상협이었는데, 그는 “경찰홍포를 부르짖”고 “혁명을 부”르는 청중의 모습을 묘사하고 행사가 “예상 이상의 대성공”이자 경찰과의 충돌이 “일본인 청중의 동정”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한다.⁴⁴⁾ 사건조사회는 경시청 내선계(內鮮系)의 검속을 무릅쓰고 재일조선인 노동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기구의 설립을 추진했고,⁴⁵⁾ 이로써 출범한 일본재류조선노동자상황조사회(이하 상황조사회)를 대표하여 김약수는 20만 명에 달하는 재일조선인 노동자를 결집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웅변했으며,⁴⁶⁾ 9월 25일의 모임에는 실제 ‘학대’를 받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총 300여 명의 인파가 운집했다.⁴⁷⁾ 상황조사회는 10월

40) 『신석현사건특전 공장측의 태도일변』, 『동아일보』, 1922년 8월 22일.

41) 『신석현학대사건과 반항 공전의 대연설회』, 『동아일보』, 1922년 9월 6일.

42) 『조사기관신조직』, 『동아일보』, 1922년 9월 13일, 3면.

43) 나카하마 데쓰는 박열과 함께 신석현 사건을 조사한 인물이기도 했다. 『검속된 연사는 구류에』, 『동아일보』, 1922년 9월 11일,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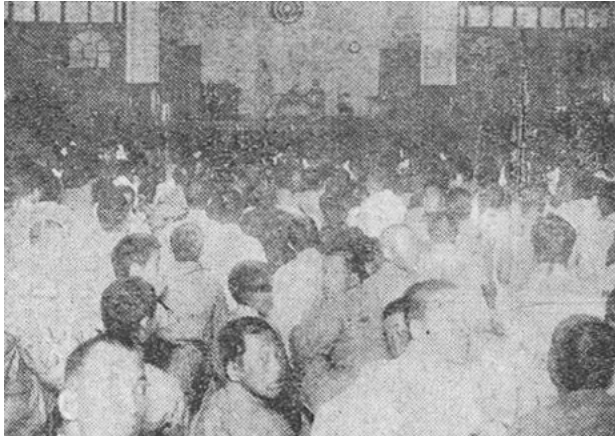
44) 『혁명가리에 해산』, 『동아일보』, 1922년 9월 9일, 3면.

45) 『『해산』 상습의 경시청』, 『동아일보』, 1922년 9월 18일, 3면.

46) 『동경의 조선인대회』, 『동아일보』, 1922년 9월 24일, 3면.

47) 『노동자의 조사회』, 『동아일보』, 1922년 9월 27일, 3면.

26일 정운해, 김종범, 김사국을 파견하여 종로에서 연설회를 주최하였는데, 그 중 ‘일본 사회혁명과 일본에 재(在)한 조선노동자’를 주제로 한 김사국의 강연은 경찰의 저지로 중지된다.⁴⁸⁾ 이후 상황조사회는 조선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 각지에 인력을 파견하고, 조선인 노동자 동맹회의 수립에 개입⁴⁹⁾하는 등 활동의 영역을 넓혀나간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3] 천도교당의 신석사건연설회
(『동아일보』, 1922년 9월 29일, 3면)

재일조선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상설기구의 필요성은 조선에서도 제기되었다. 조사회는 9월 27일 경운동에 위치한 천도교당에서 제2회 보고연설회를 열어 나경석의 조사 결과를 공유했으며, 김기전은 도일한 조선인 노동자의 통계와 더불어 그들의 가족을 취재한 후기를 전달했다. 천 명에 달하는 인파는 박수갈채로 장대를 메웠고, 조사회는 재일조선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와 계약 당사자의 조치를 촉구했다. 그리고 조사회를 대표한 김명식의 동의로 “일본에 있는 조선노동자를 영구히 잘 보호”하며 “그들

48) 『노동자문제로 명야강연회 개최』, 『동아일보』, 1922년 10월 25일, 3면; 『비감에 쌓인 노동자강연회』, 『동아일보』, 1922년 10월 28일, 3면.

49) 『조사위원의 동정』, 『동아일보』, 1922년 12월 7일, 3면.

에게 편의를 주”는 상설기관의 설립이 가결되었다.⁵⁰⁾ “신석현조선인학살사건조사회의 변체(變體)이며 확장”으로 소개된 조선인출가노동자조사회⁵¹⁾(이하 노동자조사회)는 조사회의 문서와 장부[文簿] 일절과 회계를 인계받아, 10월 21일 서대문정에 위치한 민우회(民友會) 본부 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는 신생활사를 비롯한 민우회, 무산자동맹회, 청년연합회, 교육협회 등 15개 단체의 대표 45명이 참석했으며, 상황조사회의 대표자로 귀국한 정운해의 조사 결과와 보고와 더불어 김명식, 김한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⁵²⁾ 총회에서는 신생활사의 박희도, 김명식을 포함한 전형위원 10명이 선출되었으며, 노동자조사회는 일본, 시베리아, 하와이, 멕시코 등 국경 밖 조선인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⁵³⁾ 창립총회 이틀 뒤인 23일 노동자조사회는 일본의 상황조사회에 조사비용 지원을 결정하면서, 최우선 결의 사항이었던 일본 내 조선인 노동환경 조사에 착수한다.⁵⁴⁾

동경부 하서소암(下西巢鴨)에서 다리 공사를 하는 중 지난 달 삼십일 오전 열한 시 경에 조선사람 노동자 한 명을 일본 노동자가 단도로 찢러 현장에서 참혹히 죽인 사실이 발생되어 그 시체는 일본재류조선노동자상황조사회에서 맡아다가 조선사람 수백 명이 모여 친절한 매장을 하였다 함은 이미 당시에 보도한 바어니와 [···] 전기(前記) 처소에서 공사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신내천 현학견정 조진 1929번지에 근거를 둔 토목 청부업자 도목조(稻木組)에서 그 공사를 맡아가지고 그 조합에 적은 인부의 소두목으로 있는 재등(齋藤)이라는 사람의 부하에 있는 전과범 있는 자성현 녹도군 진야촌 소궁에 원적을 둔 일향사청일랑(日向寺淸一郎)(20)이라는 자와 같이 일을 시키던 중 경성부 동대문밖에 원적을 둔 김윤린 (26)과 **실없는 장난으로 얼굴을 서로 보며 웃기기 내기를 하다가 결국은 트집을 잡아[言詰]이 되어 한참 동안은 인생을 계속 하다가 어찌 생각을 하였는지 일향사**

50) 「삼개조건을 결의하고」, 『동아일보』, 1922년 9월 29일, 3면.

51) 「11월 중의 세계와 조선」, 『개벽』 30, 1922. 12, 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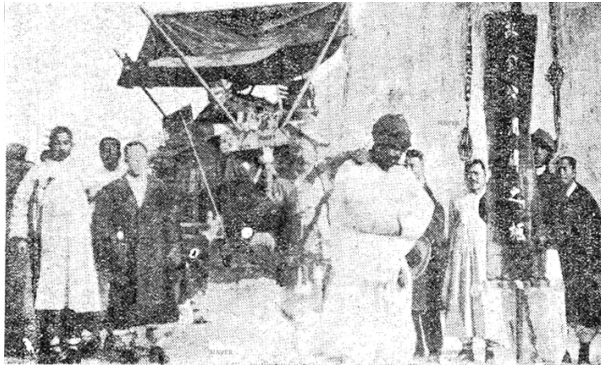
52) 「재외조선인 노동자의 조사회」, 『동아일보』, 1922년 10월 23일, 3면.

53) 「재외노동조사 위원회의 결의」, 『동아일보』, 1922년 10월 25일, 3면.

54) 「내외가 호상연락하야」, 『동아일보』, 1922년 11월 25일, 3면.

는 자기의 과실을 사죄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일항사는 다시 김윤린의 “목도”⁵⁵⁾의 끈을 잘 매지 못하였다는 것을 구실로 하여 별안간에 품에 품었던 단도를 꺼내어 그 자리에서 죽사케 하고_가해자 일항사는 현장을 도주하여 학견정 조전(鶴見町潮田)에 있는 재등의 집에 숨어있는 것을 그날 밤 열시 경에 서소압 경찰서원이 발견하고 즉시 체포하였으며 **참살된 김윤린의 시체는 동경조합에 인계 되어 있는 것을 동경재류조선노동자단에서 다시 인계하여 지나간 이일에 동경에 있는 조선사람의 여러 단체가 모여 순조선식으로 장사를 지내었으며** 조선노동자상 황조사회에서는 장비(葬費) 228원 96전과 위자료로 1,500원을 청구하여 방금 교섭 중이라더라(동경=조사회 발표)⁵⁶⁾

(강조와 현대어 변환은 필자)



[그림4] 김윤린의 장례 행렬
(『조선일보』, 1923년 1월 8일, 3면)

신석현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탐사보도가 이루어지던 무렵, 동아일보는 또 다른 채일조선인 노동자 사망사건을 보도한다. 인용된 기사에 따르면 조선인 노동자 김윤린(金潤麟)의 죽음은 일본인 노동자와의 단순한 장난에서 시작된 매우 ‘허망한’ 것이었다. 동아일보는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의 ‘허망

55) 두 사람 이상이 짝이 되어, 무거운 물건이나 돌덩이를 얹어낸 밧줄에 몽둥이를 꿰어 어깨에 메고 나를 때 쓰는 것.

56) 『수백동포의 호상리에』, 『동아일보』, 1922년 10월 12일, 3면.

한' 죽음이 도심 한복판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도하면서 일상화된 민족적 차별을 지적했는데,⁵⁷⁾ 일본과 조선에 수립된 두 상설기구는 김윤린 사망 사건에 긴밀히 협조하였다. 상황조사회는 동경의 여러 조선인 노동단체가 수습하여 가매장(假埋葬)한 시체를 국내로 들여온 후 유족을 수소문한다.⁵⁸⁾ 조선에 돌아온 시신은 조사위원회로 인계되었으나, 결국 유족을 찾지 못하여 청년회연합회의 주관으로 그의 발인이 이루어진다. 1월 7일에 열린 김윤린의 장례식에 대해 조선일보는 “기한(飢寒)의 꺾박으로 향산고지(鄕山故地)를 이별하고 해외수역(海外殊域)에 먼 걸음[遠渡]해야 노동의 잔금으로 생활을 구차하게 연명[苟延]”할 수밖에 없는 “노동동포(勞動同胞)”⁵⁹⁾를 기사화함으로써, 제일 노동자의 문제가 계급적·민족적 견지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재차 피력한다. 1922년 신석현 사건을 발단으로 ‘노동자’로 요약되는 계급적 시각은 ‘동포’의 또 다른 명칭으로써 발전한다. 요컨대 “노동자의 권리”가 “노동자의 단결”로써 보호될 수 있다는 주장은 “조선형제의 보호는 또한 마땅히 조선형제의 수로써 행”⁶⁰⁾해야 한다는 구호로 치환될 수 있었다.

신석현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빗발칠 무렵 이처럼 ‘계급’과 ‘민족’의 문제는 선명히 구별되지 않았다. 같은 해 김윤식 사회장을 둘러싸고 적대하게 되었던 것과는 달리, 두 시각은 호환되고 서로를 강화하며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하나의 결집점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한편 나경석, 염상섭 등을 필두로 한 『동명』이 기자들이 사실과 특집 보도로, 『개벽』의 주필 김기전이 직접 사건의 피해자를 취재하여 보도한 것과 대조적으로, 『신생활』의 문면에는 사건을 간접적으로 환기하는 염상섭의 소설 『묘지』⁶¹⁾가 3회 연재된 사실을 제외

57) 기사에 따르면 동경부 하서소압(下西巢鴨)에서 다리를 놓는 공사 중이던 조선인 노동자 양(梁)씨는 얼굴을 보고 웃은 일로 한 일본인과 분쟁이 생겼는데, 일본인은 양씨를 “단도로 찔살하고 다수한 일본인들은 그 참혹히 피를 흘리고 죽은 시체를 둘러싸고 조선 사람은 ”개“의 모양 같다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남겼다. 『백주동경에서 조선인을 찔살』, 『동아일보』, 1922년 10월 2일, 3면.

58) 『동경에서 타살된 해골』, 『동아일보』, 1923년 1월 1일, 3면.

59) 『민성』, 『조선일보』, 1923년 1월 7일,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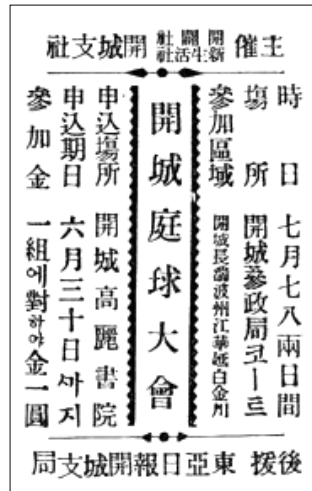
60) 『조선인노동자 조사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2년 9월 29일, 1면.

61) 최태원은 신석현 사건 관련 서술을 기점으로 민족의식과 거리를 두며 관찰자적 지위(권력)을 유지하던 중심인물 ‘나’의 위치가 흔들리며, 동시에 감시와 억압, 수탈의 병리적 현상이라는 식민지 현실이 투입한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묘지〉와 〈만세전〉의 거리」, 『한국학보』 27(2), 일지사, 2001,

하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확인되지 않는다. 신생활사의 주요 필진들이 사회주의 지식체계를 경유하여 부르주아 계몽논리를 비판하고 여성(부인)·교육·종교·예술에 대한 ‘실제비평’을 적극적으로 수행⁶²⁾했음을 상기해볼 때, 신생활사가 문필(文筆)로써 신석현 사건에 대응하지 않았음은 이례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신석현 사건과 관련하여 수행한 적극적인 사회적 실천은 여타 언론 기관과는 대별되는 신생활사의 면모였으며, 잡지사의 기획은 ‘사회주의’라는 사상적 영역과 경계의 외부로 향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3. 신생활사의 체육대회, 강연회 그리고 인쇄설비

신생활사는 당시 전조선에 빈번하게 열리던 정구(庭球) 대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신생활사 강원도 원산(元山)지사는 해당 지역 청년회가 주최한 정구대회를 후원하였고,⁶³⁾ 개성지사는 직접 동아일보 개성지국의 후원을 받아 대회를 주최했다. 개성의 정구대회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성군과 더불어 인접한 6개 군으로부터 참여자를 모집함으로써 참가를 독려했다.⁶⁴⁾ 개성에서 열린 최초의 정구대회⁶⁵⁾이기도 했던 이 행사는 1922년 7월 8일 열렸으며, 정구대회에는 2인 1조로 구



[그림5] 제회 개성 정구대회 광고
(동아일보, 1922년 6월 19일)

121~130쪽.

62) 김현주,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문화담론의 수사학』,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7~39쪽.

63) 『원산정구대회개최』, 『동아일보』, 1922년 11월 7일, 4면.

64) 『개성정구연기 칠월팔구 양일료』, 『동아일보』, 1922년 6월 27일, 3면.

65) 『개성정구대회는 오늘 정오부터』, 『동아일보』, 1922년 7월 8일, 3면.

성된 총 22개 조가 이들에 걸쳐 승부를 벌였다. 우승기(優勝旗)는 개성 송도 고보의 유은상, 한석영에게 돌아갔다. 개벽사 본사의 간부 조기간(趙基堧), 박달성(朴達成)과 신생활사를 대표한 신일용이 행사에 자리했고,⁶⁶⁾ 주최 측인 양사(兩社)는 치열한 ‘운동’을 관람하기 위해 운집한 수 천 명에 달하는 관중에게 잡지를 배포했다.⁶⁷⁾ 제2회 대회는 같은 해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는데, 한 기사는 “장내를 진동케 하는 박수 소리[聲]”⁶⁸⁾를 전하며 행사의 열기를 보도했다.⁶⁹⁾

개성 정구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두 잡지사, 신생활사와 개벽사 간의 교류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달성은 제1회 대회가 종료된 후 진행된 연회를 언급하며 대회 위원들이 다함께 “『개벽 신생활 개성지사 플레이』를 삼창(三唱)”으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자축했음을 회고⁷⁰⁾한 바 있으며, 박달성의 회고에 등장하는 임계호(林啓鎬)의 경우 잡지가 후보로 전환한 10호(1922년 11월 4일 발행)에서 신생활사 개성지사의 신입 기자로 소개되지만,⁷¹⁾ 같은 해 12월부터 1924년 10월까지 개벽사 개성지사로 활동한 이력이 확인된다.⁷²⁾ 한편 박달성은 식민지 조선의 야구·축구·정구대회를 주도한 조선체육회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대를 남기기도 했다.

나는 조선체육회에 감사한다. 또는 선수 계군에게 감사를 드린다. 조선에 무슨 회 무슨회가 많았지만 그- 실지 사업으로는 체육회가 기실을 많이 거(擧)하였다. 절(節)을 따라 야구대회, 정구대회, 축구를 개최하여 일반 청년 건아에게 많은 **건강**을 주며 많은 **기술**을 주며 많은 **승리심**을 줌은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며 그리고

66) 『개성 정구대회의 성황』, 『개벽』 26, 1922년 8월, 108쪽.

67) 『개성의 개인정구회』, 『동아일보』, 1922년 7월 11일, 3면.

68) 『개성정구 제이회 대회』, 『동아일보』, 1922년 10월 2일, 3면.

69) 개성에서 신생활사와 개벽사 주최, 동아일보 후원으로 진행된 정구대회는 1923년 5월 11일 3회까지 열렸다. 『개성의 정구전, 전례를 돌파한 대성황』, 『개벽』 36, 1923년 6월, 52~53쪽; 『성황의 개성정구 우승기는 휘문군에』, 『동아일보』, 1923년 5월 15일, 3면.

70) 박춘坡(박달성), 『삼군 일부를 방하여 다섯 번 크게 놀라인 사실담』, 『개벽』 26, 앞의 잡지, 3쪽, 66쪽.

71) 『사고』, 『신생활』 10, 1922년 3월 11일, 3쪽.

72) 『사고』, 『개벽』 30, 1922년 12월; 『근고』, 『개벽』 52, 1924년 10월, 119쪽.

징계할 것은 징계하며 장려할 것은 장려하여 덕성을 길러주며 의협(義俠)을 길러 줘야 말로 이번 현상을 보아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다. […]

그리고 일반 사회에 대하여 일언을 정(呈)하려 하노니 무슨 교 무슨 회 무슨 단(團)하고 그- 개체의 집합이 있거든 반드시 청년건아를 모아서 운동『팀』을 조직하려 한다. 그리하여 이런 대회가 있거든 반드시 참가하여 승리를 도(圖)하도록 하려한다. 그것이 그 단결을 대표한 광고기관이다. 아니 생명기관이라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이 말을 심상(尋常)히 듣지 아니하면 그 단결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의 행복 민족의 행복이 될 줄 안다. […]

승리의 기(旗)를 높이 들고[高擧] 몇 만 명 군중의 위력과 기세[示威] 하에 군악(軍樂)과 어우려져[併] 장안을 돌파하는 휘문군, 무오군의 당일의 위세- 아 부러워라. 장부(丈夫)- 마땅히 이리하겠도다. 옛장수는 옛 목관을 메고 사동(寺洞)까지 따라오는데 어떤 노동자는 10만 원짜리 금깃발[金旗]을 빼앗아 온다고 크게 선전하더라.⁷³⁾

(강조와 현대어 변환은 필자)

“지와 덕의 발달향상”을 위한 ‘체육’은 “우승열패의 세상”에서 “조선민족의 성장”과 “조선사회의 발달”을 가능케 할 한 방도로 기대되었다.⁷⁴⁾ 인용에서 확인되듯 대회의 형식으로 제도화된 집단적 체육행사는 신체적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장려되어야 할 ‘선’과 지양해야 할 ‘악’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며 공동의 목표인 “승리”를 위한 협동의 정신을 배양했다. 이로써 체육대회는 민족의 ‘단결’을 현시하는 “광고기관”이면서, 동시에 이를 구축하는 핵심적 계기, 다시 말해 “생명기관”으로 조명된다. “도덕적 인격을 발달”시키고, “기본적 진보를 지배”함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능력을 계발”할 것임을 공표한 창간(임시)호의 권두언⁷⁵⁾을 상기해볼 때, 신생활사 또한 체육대회를 통해 취지(趣旨)의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회에 참가한

73) 『2월 중의 2대 현상을 보고』, 『개벽』 21, 1922년 3월, 69쪽.

74) 『조선체육회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0년 7월 16일, 1면.

75) 白雅惠(A. L. Becker), 『권두언』, 『신생활』 1, 1922년 3월 15일, 2쪽.

선수들과 더불어 포착되는 것은 환호로써 합일되는 군중들로, 필자의 시야에 포착되는 체육대회의 열기는 경기장 안과 밖, 선수와 관중의 경계를 넘어서 전파된다. 잡지의 홍보와 더불어 ‘개조’를 배경으로 한 대중의 단결이 체육행사를 통해 도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체육대회와 더불어 신생활사의 대외 활동으로 눈에 띄는 것은 대중강연과 연설회였다. 신생활사 창립의 주축이 되었던 인물들은 잡지 발행과 대중 강연을 기획했다. 『신생활』 창간임시호는 1922년 3월 7일 인쇄되고 15일 발행되었는데, 신생활사는 발행 이틀 뒤인 17일에 “선전강연회”를 진행했다. 이사 겸 사장 박희도는 잡지의 취지를, 이사 김원벽은 ‘사회개조의 원칙’을, 기자 신일용은 ‘신생활의 논리적 기초’를 주제로 한 강연할 것임이 보도된다.⁷⁶⁾ 약 3달 뒤에는 개성지사의 주최로 신생활사 강연회가 마련되었고, 신일용은 ‘현대문화의 특징’, 김원벽이 ‘생존의 요구’, 박희도가 ‘신생활의 취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행사에는 4천금 독주가 더해져 청중의 흥미를 끌었다는 보도가 전해진다.⁷⁷⁾ 더 나아가 신생활사의 간부들은 여타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사회조직 또는 해당 지역과의 관계를 도모한 것으로 확인된다.⁷⁸⁾ 신생활사와 황해도 및 기독교 인사들과의 관계는 관련자들의 이력을 근거로 상당 부분 규명⁷⁹⁾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사 김원벽은 잡지사의 운영이 불가능해진 1923년 3월경에도 황해도의 기독교 예배당을 찾아 강연⁸⁰⁾하는 등 잡지사를 둘러싼 ‘필화’의 여파가 시작된 1922년 11월 이후에도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들이 확인된다.

신생활사의 특기할만한 대외적 행보는 출판 사업이다. 조선에서 발행된 마지막 호⁸¹⁾이자, 임시호로 발행된 16호를 마지막⁸²⁾으로 1923년 1월 8일자로

76) 『모임』, 『동아일보』, 1922년 3월 17일,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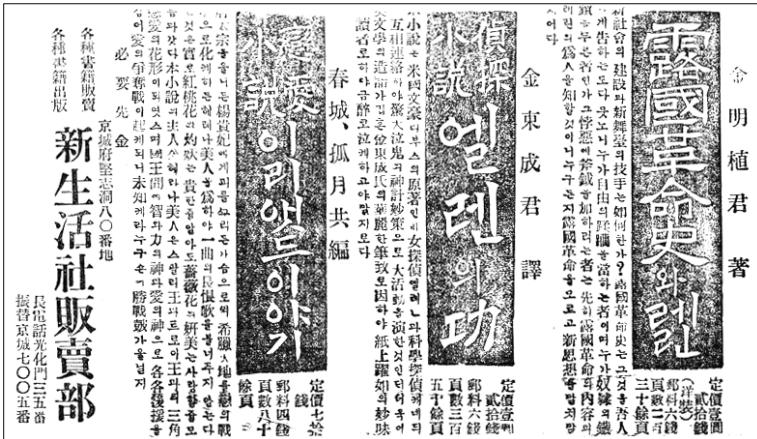
77) 『개성 강연회 성황』, 『매일신보』, 1922년 6월 10일, 4면.

78) 『야초청년연합회 제이총회경과』, 『동아일보』, 1922년 4월 2일, 7면; 『대구 공제 특별강연』, 『동아일보』, 1922년 11월 7일, 4면; 『박희도씨 특별강연』, 『동아일보』, 1922년 11월 15일, 4면

79) 박종린, 『효성 김원벽의 생애와 민족운동』, 『동방학지』 18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1~28쪽.

80) 『김원벽씨의 강설』, 『동아일보』, 1923년 3월 11일, 4면.

81) 보도에 따르면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신문사인 선봉사(先鋒社)는 『신생활』을 월간으로 재간(再刊)할 계획을 세웠으며, 신생활사의 “동포 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김영환(金永煥)은 1923년 5월 상순(上旬)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신생활』 ‘17호’를 발행하고 만주 일대의 조선인들에



[그림6] 신생활사 출판부의 광고
(조선일보, 1923년 8월 10일,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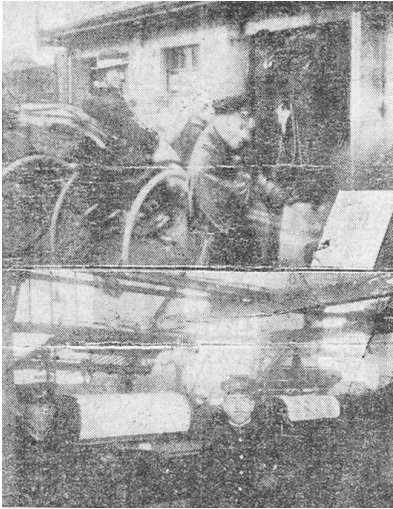
발행금지 조치⁸³⁾에 처해 더 이상 잡지를 발간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신생활사의 출판 사업은 유지되고 있었다. 신생활사는 김명식이 편집한 『노국혁명사와 레닌』과 더불어 《사회문제총서》의 출판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⁸⁴⁾ 《사회문제총서》는 「사회문제개요」, 「현대사상의 귀추」, 「부인문제」, 「노동문제」, 「사회주의의 이상」을 주제로 매월 발행될 예정이었지만, 발간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결국 기획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⁸⁵⁾ 제목에서 확

게 배포하였다고 전해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잡지는 “일본의 군국주의 공격을 맹렬히 하”였다고 소개된다. 선봉사에는 신생활사 기자이기도 했던 이성태는 선봉사의 주간(主幹)으로 활동하였고 잡지는 “러시아 공산당 고려부의 기관지”로 확인된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된 『신생활』과 관련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 「신생활을 재간?」, 『조선일보』, 1923년 5월 7일, 3면; 「『신생활』의 신생활」, 『조선일보』, 1923년 5월 29일, 3면; 「주의자 검거내용」, 『동아일보』, 1924년 10월 19일, 2면; 「금번사건의 주목처는 적로와의 직접연락」, 『동아일보』, 1925년 9월 3일, 2면.

82) 『신생활』이 발행 금지되자 신생활사는 제호를 ‘신사회(新社會)’로 하는 잡지로써 맥을 이어가고자 했으나, 세 차례의 검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창간호의 원고는 결국 압수된다. ‘필화’로 처벌을 받지 않은 신생활사의 동인과 이사들은 『신사회』의 발행을 추진했으나, 제2호와 3호 원고 또한 연달아 전부 압수된다. 동아일보는 사실을 통해 『신사회』에 대한 당국의 ‘원고 압수’가 지나친 조치임을 여러 차례 비판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고, 「『신사회』 발행」, 『조선일보』, 1923년 1월 27일, 3면; 「검열 중에 압수」, 『동아일보』, 1923년 3월 18일, 1면; 「『신사회』 원고 전부 압수되었다」, 『동아일보』, 1923년 5월 11일, 3면; 「『신사회』 원고 세 번째 압수됨」, 『동아일보』, 1923년 6월 4일, 1면; 「『신사회』 원고의 연차압수」, 『동아일보』, 1923년 6월 6일, 1면.

83) 「신간소개」, 『동아일보』, 1923년 1월 8일, 4면.

84) 「편집실에서」, 『신생활』 9, 1922년 9월 5일.



[그림] 검사국의 신생활사 수색(위)
신생활사 인쇄기계를 지키는 경관(아래)
(『검사국의 활동』, 동아일보,
1922년 11월 26일 3면)

인해볼 수 있듯 사회현안 또는 이론적 논의 등 다소 무게감 있는 내용이 총서를 채울 예정이었는데, 신생활사는 내용을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통속적으로 쓰”겠다는 사회과학서적의 대중화를 공표하기도 했다.⁸⁶⁾

한편 주보(週報)로 전환한 1922년 11월 초 신생활사는 4만원을 추가로 출자⁸⁷⁾하여 경성에 판매부⁸⁸⁾를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대동인쇄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김중환(金重煥)을 인쇄부장으로 섭외하고, 계문사(啓文社)의 인쇄소를 매수하여

인쇄부를 설립한다.⁸⁹⁾ 대동인쇄주식회사와 계문사는 당대 규모면에서 “경성에서 제일 큰 세 곳의 인쇄소”⁹⁰⁾ 중 두 곳으로 인식되었던 만큼, 신생활사의 인쇄 ‘역량’은 급속도로 향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9호까지 잡지의 인쇄를 도맡았던 한성도서주식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일종의 인쇄 ‘기지’의 면모를 획득한 신생활사는 다수의 숙련된 인쇄공을 고용하여 “가장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문에 응”⁹¹⁾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한다. 인쇄 역량을 배경으

85) 총서 기획의 첫 발간물로 예정되었던 『사회문제개론』(9호 광고에서의 제목은 『사회문제개요』)은 필자(신일용)의 사정으로 발행이 연기된다. 『광고』, 『신생활』 15, 1922년 12월 23일, 9쪽.

86) 『사회문제총서 예고』, 『신생활』 8, 1922년 8월 5일.

87) 『신생활 사업확장』, 『동아일보』, 1922년 10월 18일, 2면.

88) 경성판매부는 12월 23일로 문을 닫으며, 이후 본사에서 “직접경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사고』, 『신생활』 15, 1922년 12월 23일, 9쪽.

89) 『신생활』 10, 1922년 3월 11일, 17쪽 참고

90) 계문사는 이전까지 서적업에 종사하던 고언상(高彦相)이 조선박문관인쇄소를 인수하여 개명한 것이며, 창간 초기 동아일보는 대동인쇄주식회사의 인쇄 설비에 의존하여 물러드는 인쇄 수요를 처리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계문사대확장』, 『동아일보』, 1921년 3월 26일, 3면; 『아사에 신비한 윤전기 문명의 일대경이』, 『동아일보』, 1920년 7월 26일, 3면 참고.

91) 『개업광고』, 위의 잡지, 17쪽.

로 잡지사는 단축된 간기(刊期)와 더불어 타블로이드판으로 바뀐 잡지의 생산과 더불어 출판으로 영역을 넓혀갔다. 사장 박희도의 증언⁹²⁾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필화 사건의 원인이 된 『신생활』 11호가 4~5천부 가량이 인쇄되었고, 적지 않은 발행량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인쇄 시설은 필수적이었다. 1922년 12월 23일에 발행된 15호에 따르면 신생활사 인쇄부는 유럽어[歐文], 일어, 조선어, 한문 인쇄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아연판, 동판, 석판의 판매와 이를 활용한 인쇄와 제본까지도 취급⁹³⁾하는 등, 인쇄 사업에도 매진하고 있었다. 잡지의 발간과 더불어 인쇄 사업까지도 수행하던 신생활사의 인쇄 설비는 ‘필화’ 사건의 공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 허헌 씨가 일어나서 재판장을 보고 내가 조사하여 본데 의지할 것 같으면 신생활사에 기계 네 대가 있는데 신생활을 인쇄함에 네 대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대만 사용하였다 하니 증인을 불러서 심문을 신청하고 동시에 증인으로 이병조를 청한다 하며 재판장은 이병조 씨를 불러 신생활사와 관계 여부를 묻고 기계가 몇이나 있는냐 물으매 기계가 네 대가 있는데 네 대의 이름으로 말하면 국판(菊版)이 십륙 페이지 한 개와 국판 십륙 페이지 한 개와 사륙 반절(半折) 판 두 대가 있는데 신생활로 말하면 사륙판임으로 다른 기계에는 맞지를 아니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김명식 씨에게도 역시 그러한 사건으로 자세히 묻고 박희도 씨에게도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물은 후에 다시 허헌 씨의 신청으로 인쇄감독 김중환 씨를 불러서 역시 기계 사용에 대하여 상세히 묻고 다시 김명식 씨가 일어나서 전일에 다하지 못한 말이 있으니 지금에 하는 것이 어떠냐고 재판장에게 물으매 재판장은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무엇인지 생각하고 듣지 아니하였다 [...]94)

(강조와 현대어 변환은 필자)

위의 공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신생활사

92) 『조선초유의 사회주의재판 신생활 사건 제일회 공판』, 『동아일보』, 1922년 12월 27일, 3면.

93) 『영업목록』, 『신생활』 15, 1922년 12월 23일, 9쪽.

94) 『기계전부압수는 무리』, 『조선일보』, 1923년 1월 9일, 3면.

는 총 네 대의 인쇄기를 보유했다는 점이며, 둘째는 네 대의 인쇄기 중 국판 한 대만이 잡지 인쇄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검사국은 신생활 측과 각 인쇄기의 사용 방식을 두고 논전을 펼쳤다. 실제로 잡지를 인쇄한 국판 인쇄기는 압수되었으며, 1922년 11월 24일에는 인쇄소 앞 경찰 인력이 배치된다. 다음날인 25일에는 검사국의 경계와 더불어 요원들은 나머지 인쇄기 세 대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중요한 곳에 노끈으로 동이고 종이를 붙인 후 도장을 쳐서 놓고 기계에 통하는 전기선은 전기회사의 직공으로 하여금 전기 가 불통되도록 끊어버린 후 가죽과 그 타의 중요한 못(釘)을 차압”⁹⁵⁾된다. 11, 12호가 연달아 발매금지 조치⁹⁶⁾되고 인쇄소 전체가 봉쇄된 상황에서 신생활사는 11월 28일 공평동 소재의 대동인쇄소(大東印刷所)를 통해 13호를 발행하였으나, 13호는 검열당국에 의해 발매금지 처분을 당했으며 인쇄를 대리한 대동인쇄소의 연판 또한 압수당한다.⁹⁷⁾ 12월 18일 발행 예정이었던 14호 또한 “발행 즉시로 또다시 압수”된다.⁹⁸⁾ 『신생활』에 대한 무차별적인 제재에 대하여 신생활사 측 변호인 허헌은 공판에서 신문지법 제25조에 의해 잡지 발행과 관련된 인쇄기 한 대가 압수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와 관련 없는 나머지 세 대의 압수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⁹⁹⁾ 사법당국은 잡지사의 이사 겸 주필 김명식, 이사 이병조, 인쇄부장 김중환에게 인쇄기의 구체적인 사용을 심문하였으며, 이사 및 사장 박희도에게는 인쇄기의 구입 경위를 요구한다.¹⁰⁰⁾ 신생활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언도됨에 따라 문제가 된 인쇄기는 함께 몰수된다.¹⁰¹⁾

신생활사의 인쇄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던 무렵, 검사국은 신생활사 필

95) 『신생활』 필화사건 원고서류압수, 『매일신보』, 1922년 11월 26일, 3면.

96) 『신생활 발매금지』, 『동아일보』, 1923년 11월 16일, 2면; 『양잡지 발매금지』, 『동아일보』, 1922년 11월 20일, 2면.

97) 매일신보는 13호의 경우 “내용의 전부가 일층 위험한 사상을 선전하는 문구뿐”이었기에 “압수의 처분이 전보다 비교적 빨리되”었음을 보도한 바 있다. 『신생활』 십삼호 압수, 『매일신보』, 1922년 11월 29일, 3면; 『언론의 옹호를 결의』, 『동아일보』, 1922년 11월 29일, 3면.

98) 『사고』, 『신생활』 15, 앞의 잡지, 4면.

99) 『신생활 제차 공판』, 『매일신보』, 1923년 1월 9일, 3면.

100) 『신생활 계속공판』, 『동아일보』, 1923년 1월 9일, 3면.

101) 『인쇄기 일대도 몰수』, 『동아일보』, 1923년 1월 17일, 3면.

화 사건을 기점으로 전사회적인 ‘사상단속’을 수행했다. 사법당국은 해주(海州)·원산(元山)·함흥(咸興) 및 경기도 등지¹⁰²⁾로 검사를 파견하였는데, 이는 곧 취체가 ‘필화’의 당사자인 신생활사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방면으로 뻗어나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사법기관의 검속은 경성 시내의 모처로 옮겨졌는데, 그 대상은 신생활사를 넘어 언론인과 사회운동가들의 거처까지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압수대상이 된 물품 또한 서적, 편지, 일기책으로 다양했다. 동아일보는 사법당국의 전방위적인 취체에 대해 “사상취체라는 구실로 언론계에 대한 압박을 행”한다고 비판했으며,¹⁰³⁾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를 제외한 조선의 언론사들(조선지광사·개벽사·동명사·조선일보사·동아일보사)은 필화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공표한다.¹⁰⁴⁾

한편 신생활사의 인쇄기는 또 다른 사회운동가들을 재판장으로 불러들였다. 이른바 ‘자유노동조합 사건’의 주모자들이 신생활사 필화사건의 당사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다.¹⁰⁵⁾ 자유노동조합은 1922년 10월 29일 종로에 위치한 한양여자강습원에서 자유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약 200명의 지계꾼, 막별이꾼이 모여들어 조합 수립을 의결하였고, 임시의장이었던 김사민은 “부자계급을 때려 부수”는 것을 조합의 목적으로 공표했다.¹⁰⁶⁾ 검사국은 자유노동자조합이 신생활사가 제휴하여 “모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혐의를 들어 김사민을 취조했고,¹⁰⁷⁾ 그가 취지서(趣旨書)의 인쇄를 신생활사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명식은 자유노동조합 발기회에 참석한 것과 김사민의 청탁을 받아 취지서를 잡지에 게재한 자가 자신임을 인정하였다.¹⁰⁸⁾ 한편 자유노동조합의 집행위원 이항발(李恒

102) 『신생활필화사건과 범위거의확대호』, 『매일신보』, 1923년 11월 27일, 3면.

103) 『사대에 분하여 팔방으로 수색』, 『동아일보』, 1922년 11월 26일, 3면.

104) 『언론계가 수필기』, 『동아일보』, 1922년 11월 26일, 3면.

105) 1923년 1월 첫 공판에서 정역 2년이 언도되어 구치소에서 생활하던 김사민은 간수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조선일보의 기사는 그를 “신생활의 동인”으로 언급하나 이는 사실관계의 오류로 보인다. 판결에 대해 항소[控訴]했던 신생활사 피고인들과 달리, 김사민은 항소 없이 복역한다. 『김사민은 수복역』, 『매일신보』, 1923년 1월 29일, 3면; 『옥중의 김사민』, 『조선일보』, 1923년 2월 2일, 3면.

106) 『단결된 자유노동자』, 『동아일보』, 1922년 10월 31일, 3면.

107) 『언론의 옹호를 결의』, 앞의 기사.

發, 이명 이시우)는 김사민이 신생활사에 취지서를 전달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음을 주장¹⁰⁹⁾하였으나, 자유노동자조합 측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에 처해진다.¹¹⁰⁾

언론 보도와 공판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대외적 활동을 살펴볼 때, 사법당국의 판단이었던 “과격 사회주의적 선동”¹¹¹⁾만으로는 ‘활동기지’로서의 신생활사의 면모는 충분히 규명되기 어렵다. 신생활사는 식민지적 상황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사회 변혁의 동력을 마련할 사회주의 지식 체계를 유통함과 동시에, 체육대회·연설회를 조직하여 민중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도모했다. 한편 신생활사의 인쇄시설은 ‘사상’의 보급과 사회적 ‘실천’이라는 잡지사의 양면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대중적인 사회과학서적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을 고무할 선전문을 조선 사회에 전파한 인쇄 시설은 과연 ‘활동기지’로서의 신생활사를 가능케 한 물질적 조건이었던 것이다.

4. 나가며

이 글은 신생활사의 대외적 활동을 검토하여 역사적 의의를 보충한 것이다. 신생활사는 ‘민족(동포)’과 ‘계급’으로 분화되어가던 1920년대 전반기 담론장을 배경으로 탄생했지만, 동시에 지향을 달리한 여러 언론과 단체들을 규합하여 제일조선인 노동자 문제에 공동 대응한 매체였다. 잡지사가 주도한 전조선적 움직임은 치안당국, 제국의 언론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동포’와 ‘계급’ 담론은 서로 맞물리며 통치권력을 압박했고, 기미년 이래 잠재되었던 식민지/제국의 긴장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사 겸 주필 김명식은 필화사건 공판에서 검사와 판사를 향해 칼 마르크스를 주제로 강연하며 사회주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드러냈지만,¹¹²⁾ 잡지사의 활동은 단지 붓끝에만 머무르지

108) 『조선초유의 사회주의재판 신생활 사건 제일회 공판』, 앞의 기사.

109) 『유창한 신씨의 답변』, 『동아일보』, 1922년 12월 28일, 3면.

110) 『인쇄기 일대도 물수』, 앞의 기사.

111) 『“신생활”의 운명 수히 발행금지령 명령』, 『조선일보』, 1923년 1월 10일, 3면.

않았다. 신생활사의 주요 필진들은 강연·연설회와 더불어 체육대회를 적극 주관하여 ‘신사회’ 건설을 위한 가치를 홍보하고 주체가 될 민중과 접촉했다. 한편 강력한 인쇄 설비를 바탕으로 신생활사는 각종 출판·인쇄사업을 경영하였고, 비합법적 선전물을 인쇄하는 등 문화와 정치의 영역을 넘나드는 ‘인쇄기지’로서의 면모를 확보했다. 필화사건 당시 치안당국이 수행한 전방위적 취체는 ‘이념’과 ‘활동’의 영역에서 신생활사가 보유한 비중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112) 『유류무류』, 『매일신보』, 1923년 6월 6일, 2면.

■ 참고문헌

1. 자료

『개벽』, 『공제』, 『대한매일신보』(국문판), 『동명』, 『동아일보』, 『매일신보』, 『신생활』, 『조선일보』

2. 단행본

김현주, 『사회의 발견』, 소명출판, 2013.

3. 논저

김경연, 『1920년대 초 ‘공통적인 것’의 상상과 문화의 정치』, 『한국문화논총』 71, 한국문화회, 2015, 343~405쪽.

김종현, 『『신생활』의 사회주의 담론과 문예의 특성』, 『인문논총』 32,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199~222쪽.

김현주,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문화담론의 수사학』,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7~39쪽.

박종린, 『1920년대 초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신생활』』, 『사림』 49, 수선사학회, 2014, 73~105쪽.

_____, 『호성 김원벽의 생애와 민족운동』, 『동방학지』 18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1~28쪽.

박현수, 『신문지법과 필화의 사이: 『신생활』 10호의 발굴과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69, 민족문화사학회 · 민족문화사연구소, 2019, 269~300쪽.

_____, 『『신생활』 필화사건 재고』, 『대동문화연구』 10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345~378쪽.

전성규, 『‘감정’과 ‘노동’이라는 의미소 - 『신생활』에 실린 신일용의 글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31, 국제한국문화학회, 2021, 161~197쪽.

최병구, 『사회주의 문화 담론과 프로문학: 신경향파 문학 탄생의 주면(1920~1923)』, 『민족문화사연구』 49, 민족문화사학회 · 민족문화사연구소, 2012, 218~255쪽.

최태원, 『<묘지>와 <만세전>의 거리』, 『한국학보』 27(2), 일지사, 2001, 107~130쪽.

Re-discussion on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 New Life*

Jung, Yoonsung*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Life*, which is known as the first “socialist magazine” of colonial Korea and the first magazine to be indicted for writing.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with a focus on the translation of the socialist ideology and its contemporary meaning. Proliferating socialist ideas, key members of *New Life* also responded to social issues. In the wake of the so-called Shin Seok-hyun(新潟県, Niigata in Japanese) massacre in 1922, *New Life* planned collective actions by forging a relationship with media and social groups both in Colonial Korea and Imperial Japan. The magazine's attempt to criticize Japanese colonial rule was considered formidable. Furthermore, *The New Life* did not only remain in the domain of knowledge and discourse, but also sought to have a direct contact with the public. Sports competitions and public lectures were carried out as means to directly appeal to the people. Based on its strong printing capabilities along with a wide network of media, regions, and religions, *The New Life* could function as a pivotal base for activists. Indiscriminate judicial measures aimed at magazines prove its significance in the society. By reviewing *The New Life's* social participation,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sphere of socialism in the early 1920's of Colonial Chosun.

*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hD student

Key words : public lecture, *The New Life*, Niigata Incident, printing machine, sports activity, 1920's